

#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생의 학문

## 욕심과 자존심을 버려야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이 세상은 사람이 살다가 잘못 되는 수도 있고 잘되는 수도 있는데 잘못 생각해서 잘못 될까요, 바로 생각해서 잘못 될까요? 잘못 생각하면 잘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바로 생각하고 기왕이면 나에게 유익되게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이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역사가 6000년이 흐르면서 죽지 않는 학문을 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천하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이 논하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학문 즉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학문을 논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므로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요, 유익한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행복해져

그러면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야, 미운 사람이야? 마귀는 밭잡듯? 마귀는 구세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위에 발을 붙이

지 못하고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가 갈리도록 구세주가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구세주의 험담을 하고 구세주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들어가서 혹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지옥으로 던지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애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오염되면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고로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의 선한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마귀가 그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 병 걸리지 않는 비결, 이제 불행해지지 않는 비결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씌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고로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희망을 가져라.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세상에서 잘 되고,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항상 웃으면 인상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돼

또한 “사람이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해진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고로 안 될 일도 되게 되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



구세주 조희성님

거우면 항상 웃고 있는고로 인상이 좋아지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누구든지 좋게 보는고로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가 없고, 병에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까지 공부 잘해서 1등을 해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유용하게 써 먹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써먹지 못하면 모두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고는 영생의 길

이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19살 때에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는데 19살 때에 이 사람이 자살을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죽는고로 결국은 나도 죽을텐데 고생 고생하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였던 것입니다.

### 죄만 해결되면 죽지 않아

이 사람이 10대 때에 철학 서적을 즐겨 읽었는데 철학 서적을 읽어보니 세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당 간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허황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10대 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을 바에는 일찍이 죽자, 해서 한강 다리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마침 한강에서 고기 잡는 낚시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구출했던 것입니다. 구출이 되고나니까 왜 이렇게 죽는 것이 무서운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살한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죽을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짚값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 죄만 해결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 비결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 자존심이 바로 사망의 영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 누구한테도 죽는 원인의 학설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피가 썩어서 죽는다.”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이 건 지금이 과학적이면서 정확한 학문인 것입니다. 피가 썩어서 죽고, 피가 썩어서 늙고, 피가 썩어서 병 걸린

다는 말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지구 땅위에 하나밖에 없는 영생의 학문인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피가 썩는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만 해도 피가 썩는다.”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영생의 학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유교에서 말하는 “나를 이기는 자는 천하를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과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하는 불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학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병의 원인이 되는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정확하게 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마귀의 영이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바로 사망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논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리 좋은 천당도,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시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는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인고로 성경이나 불경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식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마땅히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1992년 3월 9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사피의 변화

#### 신이란 무엇이었는데?

역사상 신학 종교학 사회학이 탐구해 온 주요 대상의 하나가 바로 신이다. 신에 대한 관념과 정의는 나라마다 종족마다 긴 시간을 거쳐 구축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다.

인류역사를 돌아다보면 인간의 의식과 문명의 변천사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에 따르면 어떤 시대에는 몸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있고, 또 어떤 시대에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몸이란 먹고 입고 자며 즐기는 삶을 우선하는 가치 체계의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시대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문명적 발달의 형태를 연출한다. 또 마음을 중시하는 시대란, 어느 정도 먹고 입고 자며 즐기는 것이 안정화되면서 마음을 우선시 행하면서 정신적 신앙적 성숙을 지향하는 시대를 창출한다.

이러한 몸과 마음을 번갈아가며 행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의 신에 대

한 관념 또한 발달과 정체, 또는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 추구와 지향하는 바를 들여다보면, 신에 대한 개념정의 또한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 신의 관념과 성상(性狀)의 진화

고대 마야 문명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모두 시간과 수의 신들이었으며, 마야 신화의 주인공들 모두의 이름 앞에는 특정한 수가 붙어 있었다. 예컨대 가장 위대한 영웅은 후나부쿠인데, 혼은 하나를 의미한다.

이 시대를 인류사의 정신적 영적 성장 단계 가운데 유년기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야문명은 정신적 영적으로 단순한 사고와 행동, 표현 양식을 보이므로 유년기로 볼 수 있겠다.

중국의 고전에 “잘 알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했다. 신이란 형체가 없는 것이지만 형체가 있는 만물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에 깃들어 있으면서 그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용을 신이라 한다. 번개 바람 불 호수 물 땅을 활동시키는 것이 모두 신이 하는

## 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시대는 인류사의 정신적 영적 성장 단계 가운데 소년기라 볼 수 있다. 소년은 정신적 영적으로 상상력과 호기심이 왕성하게 작용하는 사고와 행동, 표현 양식을 보인다.

고대 사마니즘의 경우에는 “기론(氣論)이 신론(神論)이고 신론이 기론이며, 신이 기이고 기가 신이며, 신과 기는 상생과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역경> <도덕경> <맹자> <장자> 등에 표현되고 있고, 인류의 원

시 단계에서 신(神)의 관념은 수(數)로 표현되었으므로 수에서 신으로, 신에서 기(氣)로 바뀌어 온, 이 우주의 가장 근원적 힘과 생명력의 존재에 대한 표현법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중세와 근대에 와서는 “신이 하늘에 있다”를 넘어서 “우주 어딘가에 있다”라고 절대 신봉하게 만들었다. 이를 거스르면 이단으로 사이비로 치부하며 응징과 심판을 하였다. 한편 인류의 의식과 지적 수준,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과거의 신에 대한 관념과 인식이 서서히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한 몇몇의 종교에서는 자꾸만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영역으로 신과 그 거처를 옮기는 데 주저함이 없다.

####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신

이 우주의 주재자, 절대자, 무한자, 그리고 모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관장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만물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창조한 원초적 지성인가, 특정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이해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온갖 기적들을 행사하고 다니는 초자연적 신성인가, 스스로 정한 어떤 격률에 따라 창조물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심판하는 재판관인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성, 의도, 감정, 성향 따위를 가진 인격인가,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복합체인가?

스피노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부여한 허구적인 신념들을 이성이라는 이름의 톱과 삼으로, 날날이 오

체분시(五體分屍 : 머리와 양쪽 팔, 양쪽 다리에 묶인 밧줄을 다섯 마리의 소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서 찢어 죽이는 참혹한 형벌)한 뒤 몽매의 흙구덩이 속으로 내던져 파묻어버린다. 그는 “이러이러한 자명한 인식들에 의거해 연역적 추론을 해보니 싹다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더라”하고 진술한다. 그는 “신은 지구의 신, 인류의 신이며, 인류 역사가 만들어 낸 신, 인류 기질을 닮은 신, 인류의 두려움과 염원에서 나온 신, 영웅이 되기도 하고 비극을 날기도 하는 신, 자기 부족이나 자기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정의했다.

이 시대의 지성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박사는 “신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발 하라리 박사는 신의 그릇된 관념과 허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가 다른 아닌 인간이며, 정작 인간 자신이 신(神)이라는 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과연 신이 왜 인간이며, 또 어찌 하여야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답변은 지면 관계 상 다음 호에 해야 되겠다.\*

김주호 기자